

유네스코 한일청년교류사업

머리말

유네스코 한일청년교류사업 위원회는 과거 2년간에 걸친 교류를 통하여 양국의 역사의 사실인식을 추궁하고, 또한 양국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지를 방문함으로써 같은 동아시아지역의 가장 가까운 나라인 양국의 시민으로서,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여 따뜻한 우정을 키우는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거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도의 한일청년교류사업에서는 사업참가자 뿐만 아니라 널리 양국시민들에게, 참가청년들이 체험하고 체득한 것에 의거하여 한일관계를 배우는 데 있어서 알기 쉬운 자료를 작성함으로써 이웃나라인 한일양국의 우호를 깊게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온 참가자 17명(동행강사 2명, 참가자 11명, 통역 2명, 사무국 2명)이, 각 방문지에서 조선동신사 왕래시의 문화교류터, 세계문화유산 등록지 등을 견학하여, 자료작성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한국·일본 양국의 참가자가 한일간의 역사적, 문화적 교류사를 정리하여, 한국에서 그 자료에 대하여 검토회를 가졌습니다. 이 사이트는 본 사업의 양국 일반 참가자가 평화를 기원하여 시민 차원의 시각에서 작성한 것으로 전문가의 시각에서검정 작성된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